

第 24 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完州農樂놀이

＝보시라 傳統의

右道農樂을＝

때 : 1983, 10. 21~23

곳 : 慶北安東市民運動場

全 羅 北 道

人 事 말 씀



豊饒가 온누리에 가득한 이때 由緒깊은 安東땅에서 열리는 第24回 全國民俗 競演大會에 參加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湖南의 穀倉이라 일컫는 全北은 일찌기 찬란한 馬韓·百濟文化를 꽃피웠던 곳이며 朝鮮朝에 이르러서는 儒敎文化의 發祥地로서 有·無形의 많은 文化財와 遺蹟

地가 保存되고 있습니다.

특히 廣濶한 平野地에서 비롯되는 農耕生活은 多樣한 固有民俗과 民謠 그리고 古 놀이를 盛行케 하였던것입니다.

이번에 全北道가 出演하는 完州 釜洞農樂은 全北農樂의 左·右道農樂中 右道굿으로, 農樂꾼의 服色이 素朴하면서도 華麗한 멋을 지니고 있으며 手法과 가락이 多樣하고, 個人技보다는 團體의 律動에 그 妙味를 두고 있다 하겠읍니다.

編成은 令旗, 龍旗, 太平簫, 興釧, 二鉦, 六杖鼓, 三大鼓, 十二法鼓, 都砲手, 唱房, 兩班, 소리중등 45名으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옛 가락과 멋이 풍기는 全北農樂의 흥겨움에 한껏 젖어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聲援을 當付드립니다.

1983. 10. 21

全羅北道知事 沈 載 鴻

農 樂

一. 全北 農樂 概觀

우리고장의 農樂은 左道굿과 右道굿의 長點을 取하여 構成하였다. 즉 어느 한 地域의 農樂人에 局限하지않고 道內 全域에 걸쳐 發掘한 全道農樂 名人을 網羅하였다.

衣裳은 素朴한 農民服 차림의 原型을 살리기 爲하여 저고리에 조끼를 입고 古代衣制를 模取하였고 着帽는 一部 꽃갓을 쓰기도 하였고 上釧로부터 六釧까지는 原型을 살이기 爲하여 釧服과 戰笠(부포)쓰고 “가림새”와 가락에 채받금의 洗練된 組成에 힘을썼다.

二. 全北 農樂의 特色

① 形態

本道는 山間地帶에 平野地帶의 左右農樂으로 크게 區別하여 左道굿·右道굿이라 稱하고 있는데 그 特徵은 다음과 같다

◎ 左道 굿

- 가. 地域(南原, 鎭安, 長水, 茂朱, 任實)
- 나. 衣裳(會員이 戰笠을 쓰고 服色이 比較的 簡素하다.)
- 다. 手法(動作)이 機敏하고 團體演技에 置重한다.

◎ 右道 굿

- 가. 地域(金堤, 井邑, 扶安, 高敞, 沃溝, 益山, 完州, 淳昌)
- 나. 衣裳(戰笠과 花冠(꽃갓)을 併用하고 服色이 華麗하다.)
- 다. 手法(가락이 多樣하고 個人演技도 보여주면서 陣法에 置重한다.)

② 編 成 : 龍旗, 令旗, 새납, 都砲手, 兩班, 조리등, 上釧, 副釧, 三釧, 四釧, 五釧, 六釧, 首鉦, 副鉦, 三鉦, 四鉦, 首杖鼓, 副杖鼓로 杖鼓, 四杖鼓, 五杖鼓, 六杖鼓, 首大鼓, 副大鼓, 三大鼓, 首法鼓, 副法鼓, 三法鼓, 四法鼓, 五法鼓, 六法鼓, 七法鼓, 八法鼓, 九法鼓, 十法鼓, 十一法鼓, 十二法鼓, 十三法鼓

◎ 釧 놀이 : 부포놀이, 양사, 배미레기, 해바래기, 전조시

法 鼓 : 花冠(꽃갓)法鼓놀이

杖 鼓 : 三杖鼓놀이

三. 農樂 出演 順次

募群굿, 人事굿, 오채질굿, 노진삼채, 된삼채, 풍류굿, 양산도, 삼채굿, 오방진굿, 된삼채굿, 호호굿, 다러치기, 노진삼채, 된삼채굿, 歸農굿

출연자 명단

(43名)

외 : 나금추, 양순용, 이수남, 박용택, 최경선, 성행년
징 : 정장순, 김창환, 노병근, 유성수
장 고 : 김형순, 강수병, 유신욱, 유순희, 유복천, 김용철
대 북 : 김규철, 김화영
소 고 : 김진철, 조현섭, 임종식, 양봉용, 박종윤, 이보성
김종수, 신선동, 황봉기, 이동수, 김진오, 이홍우, 김성신
대표수 : 최동근
양 반 : 최남진
여 장 : 오봉선
조리중 : 이현두
영 기 : 유진욱, 유운중
농 기 : 김종진
용 기 : 이정기, 성길동, 오오득
새 납 : 박기동
나 팔 : 문기복

農樂指導 : 李 香 萬 (國協全北支部長)

按 舞 : 洪 一 杓 (藝總全北支部事務局長)

協 贊 : 韓國文化藝術團體全北支部